

위닉스 환경 공모전

[수필]

30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
은혜초등학교
1학년 유승현

38살이 되어있을 승현이에게...

안녕? 나는 8살 승현이야.

난 타임머신에 넣을 편지를 쓰고 있어.

난 요즘 고민이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난 요즘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공기를 맑혀 하고 싶은게 나의 바램이야.

우리집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어서 공기에 좋은 식물을 기르고 있어.

내가 커서 30년이 지난 38살의 나에게 편지를 쓰려니 상상이 안돼.

그땐, 공기가 지금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기가 아닐거 같아.

요즈음 물을 사먹는 것 처럼 공기도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러니?"

요즘 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야.

공기, 물, 나무, 태양 같은 자연에 감사하고 있어.

38살의 승현이 네가 사는 세상은 나무랑 꽃이 많지 않는 세상일 수도 있겠다.

나는 지금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너도 30년 뒤를 살지만 환경을 아끼고 사랑할거라 믿어.

30년 전과 30년 뒤의 승현이가 만나서 같이 아름다운 공기, 하늘을 보며 손잡고 이야기 하는 것
을 상상해

2017년 9월 하늘 맑은 날

8살 승현이가...